

# 내가 사는 도시의 정책은 내 손으로

### 군산시, 정책장터 '우리들의 군산' 개최... 민선8기 2주년 맞아 민주적 시민 공론장 마련

군산시가 오는 6일, 군산시청에서 '2024 정책장터 우리들의 군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장터는 시민의 시정 참여 확대 및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가운데 지역의 현안 발굴과 시민토론 및 정책 제안을 통한 민주 시민 역량 강화를 위해 열리는 소통의 장이기도 하다.

특히, 그동안의 시민제안이 직접적인 참여가 어려운 온라인 상에서 이루어졌던 것에 반해 이번 정책장터는 시민이 현장에서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정책에 대해 배우는 민주적 시민 공론장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사전에 선정된 시민 우수제안 9개 중 시민들의 현장 투표를 거쳐 최우수 제안을 결정하는 '내가 뽑는 정책마당', 시장과 시의원 그리고 국회의원이 시민들과 함께 시정 정책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민과의 토크 콘서트', '따뜻한 민주주의'를 주제로 전남대학교 철학과 박구용 교수와 함께 하는 명사 특강 등이 있다.



이외에도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평소 생각하는 정책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발표하는 '시민 발언대'와 원탁에 모여 삼삼오오 그룹별 정책을 만들고 제안하는 '확자지결 원탁 토론회', 군산시민이라면 누구나 도전해 볼 만한 '나도 군산 박사(골드벨)' 등이 있다. 이 3가지 프로그램은 사전 신청이 필요하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들은 홈페이지

를 참조하면 된다.

정책과 시민들이 만나 진정한 군산시의 '정책장터'가 될 이번 행사는 앞서 이야기한 이벤트 외에도 △군산시와 각 기관의 관련 정책에 대해 소개하고 시민 제안을 받는 '정책 부스' △내가 사는 지역에 필요한 제안을 군산시 대형 지도위에 붙여보는 '정책 제안 지도' △시정 현안 문제 해결에 대한 정책 제안을 과거시험과 연계한 '정책 과거시험' △정책과 놀이를 결합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는 '정책 보물찾기' 등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들이 시민들을 기다리고 있다.

김임준 군산시장은 "처음 개최되는 정책 장터를 통해 다수의 시민 의견을 현장에서 듣고 논의하는 속의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공론장을 만들어 가겠다"며, "시민의 참여로 완성되는 행사인 만큼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시는 이번 정책장터에서 시민이 제안한 의견과 내용을 검토해 향후 분야별로 시책화 할 계획이다.

/군산=이재춘 기자

# 기업하기 좋은 도시 군산 만들기 '맞손'

### 군산시-6개 경제단체, 군산 산업발전·동반성장 위한 협약 체결

군산시가 2일 관내 6개 경제단체와 '기업하기 좋은 도시 군산 만들기'를 위한 산업발전 및 동반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김임준 군산시장, 조성용 군산상공회의소 회장, 김경희 군산국가산업단지 경영자 협의회장, 석상신 동군산산업단지 협의회장, 열철영 삼산산업단지 협의회장, 오석천 서군산산업단지 협의회장, 황준필 임피산업단지 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군산시와 관내 경제단체 간 산업활동에 필요한 협력 강화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참석자들은 군산 산업단지 발전지원과 기업활동과 생산성 향상에 필요한 경제단체 간 상호 프로그램 참여, 기업의 애로사항 청취, 산업 동향 및 지역 발전 등에 대한 정보자료를 주기적으로 공유하기로 하였다.



조성용 군산상공회의소 회장은 "오늘 협약을 계기로 각 산업단지의 기업들이 서로 협력하여 함께 동반성장하면서 군산시 경제발전의 새로운 한 축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임준 군산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군산시와 경제단체 간 협력 강화로 산업단지가 고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더욱 더 기업하기 좋은 군산을 만들기 위해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 지역 소식 통

### 군산시, 민선 8기 2주년 기념

#### 청렴 실천 결의대회 개최

민선 8기 임기가 절반을 지난 가운데 군산시는 1일 군산시청 대강당에서 전 직원 '청렴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하며 다시 한번 청렴도 향상 추진 의지를 다졌다.

청렴 실천 결의문은 7월 1일자로 차지행정국장에 임명된 박종길 신임 국장이 대표 낭독했고 군산시 직원 일동의 이름으로 작성되어 김임준 군산시장에게 제출됐다.

결의문에는 부정 청탁, 사익 추구, 갑질, 부당 업무 지시 금지 및 공정한 업무수행, 상호 존중, 청렴성과 공무원 품위 유지를 약속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임준 군산시장은 "전 직원의 마음을 담은 청렴 실천 결의문을 소중히 간직하겠다"며 "직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청렴하게 일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김임준 군산시장은 "전 직원의 마음을 담은 청렴 실천 결의문을 소중히 간직하겠다"며 "직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청렴하게 일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김임준 군산시장은 "전 직원의 마음을 담은 청렴 실천 결의문을 소중히 간직하겠다"며 "직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청렴하게 일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김임준 군산시장은 "전 직원의 마음을 담은 청렴 실천 결의문을 소중히 간직하겠다"며 "직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청렴하게 일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 익산시, '찾아가는 반다비 재활프로그램' 큰 호응

익산시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올해 새롭게 운영하고 있는 '찾아가는 반다비 재활프로그램'이 수강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일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 5월 8일 시작한 프로그램은 현재까지 5회 운영되었으며 60여 명의 수강생들이 매회 열정적으로 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교육은 장애를 가진 대상자들의 특성을 고려해 수업 방식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한 활동에 6명을 넘지 않게 인원을 조정해 집중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프로그램은 오는 8월 28일까지 매주 수요일 재활 운동 및 작업 활동 등으로 진행된다. 건강생활지원센터는 프로그램 종료 후 △운영 만족도 △수업 선호도 △효과성 등에 대한 의견 조사를 실시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갈 예정이다.

박미숙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은 "앞으로 장애인들의 재활과 사회활동 등을 돕기 위해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 익산시장, 섬유 산업 현장 찾아 소통 행정 펼쳐

### ECO융합섬유연구원·섬유패션클러스터동 및 창업보육센터 입주 기업 방문

정현을 익산시장이 ECO융합섬유연구원과 섬유 기업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시는 정 시장이 2일 ECO융합섬유연구원에서 익산시 기업 지원 현황 및 계획 등을 살피고, 섬유패션클러스터동과 창업보육센터 입주 기업을 방문해 운영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정현을 익산시장이 2일 ECO융합섬유연구원 등에서 익산시 기업 지원 현황 및 계획 등을 살피고, 섬유패션클러스터동과 창업보육센터 입주 기업을 방문해 운영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전보호복합소재 관련 업종으로 확대 대비 활용 및 임대, 공동연구 개발을 통한 상호 협력 생태계 조성에 힘쓰고 있다.

정현을 시장은 ECO융합섬유연구원 현장 행정을 마치고 섬유패션클러스터동에 입주한 살투스안전 등을 방문해 기업 운영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서민강 원장은 "우리 연구원은 익산시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지역 섬유기업의 구조 및 기술 고도화를 지원하고

있다"며 "익산시가 고부가가치 융복합 섬유산업의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을 시장은 "지역 내 섬유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에 감사드리다"며 "앞으로도 방위산업, 국가사업 등에 적극 대응해 섬유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기틀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앞장서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 익산시장, 기재부 찾아 국가예산 확보 '총력'

### 주요 현안사업 관련 각 부처 예산과장 면담

정현을 익산시장이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발품 행정을 펼치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익산시는 2일 정현을 시장이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사업 관련 예산과장 등 국가예산의 열쇠를 쥔 핵심 관계자와 면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사업추진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주요 현안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부처간 미반영 및 과소반영 사업 뿐만 아니라 반영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익산시는 기재부 심의 기간 주요 중

점사업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전방위적으로 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아울러 조감상 세종사무소장을 중심으로 전북특별자치도는 물론 이춘석·한병도 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권과 긴밀한 공조 시스템을 구축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정현을 시장은 "우리시의 미래성장 동력 구축을 위해 국가예산 확보는 필수 불가결하다"며 "8월까지 이어질 기재부의 심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주요 현안 사업들이 정부 예산안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 익산시, '1시민 1악기 프로젝트' 마무리

### 수강생 악기 발표회 개최... 16개 팀 108명 참여

익산시가 '1시민 1악기 프로젝트'를 통해 시민들에게 예술의 꿈을 펼칠 기회를 제공했다.

시는 상반기 1시민 1악기 프로젝트가 18주간의 악기 감습을 마치고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2일 밝혔다.

1시민 1악기 프로젝트는 친구, 가족, 지인 등과 5명 이상으로 팀을 꾸려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감습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악기 감습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춰 기존 감습 방식에 대해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느꼈던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상반기 사업에는 25개 수



강팀을 모집하는데 70개 팀, 417명이 신청해 시민들의 참여 열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수상팀은 클리리넷을 연주한 '이들의 클라 팀', 우쿨렐레 '우쿠부크 팀', 오카리나 '오늘 팀'으로 각 팀에게는 하반기에 실력 향상을 위한 감습 기회가 제공된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 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 내부를 장식했으며,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곡창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게 교훈을 주는 곳이다.

전주매일 캠페인